"집착 안하니 깔끔하고 맑은 기운이 …"

우고 살림하는 것도 버거운데 내 팔자에 무슨 복을 짓겠다고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펴뜩 들었다. 선업을 지어보겠다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냥 모든걸 놓고 집에 오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내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발원하며 원을 세웠다. 원을 세우다 보니 이 고통의 원인은 부처님 전에 복 짓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남보다 잘해서

부처님가르침은
에너지의 원천
부처님과 함께하는
한마음이 현실을
사는 지름길이란
생각이 들었다

생색 내 보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다. 그 때 그 자리에서 바쳐내지 못한 마음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금강경〉을 읽으면서 속이 상한 모든 마음을 부처님 전에 올렸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경전을 읽는 것이 졸립고 힘들어서 읽기 싫은 마음이 났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치고 또 바쳐 집중하다보니 지혜가 열리는 것이 선명해지고 몸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바빠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참된 자신을 위한 진정한 시간이고, 에너지의 보고란 생각이 들었다. '아! 정말 부처님께서는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구나'

부처님과 함께 하는 이 한마음이 바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이란 걸 깨달았다. 점점 속이 시원해져 옴을 느꼈다. 오늘 느낀 수치심이 아상인 줄 알게 되고, 그 아상에 속아서 현재심을 송두리째 잃어 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알음알이가 알아지는 중에도 깊은 가슴 한켠엔 '된장 산다고 또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며 아상 다치기 싫어하는 마음과 게으른 마음이 유혹하고 있었다. 슬금슬금 변신해 가면서 나약해진 내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다가오는 습과 업장을 주시하면서 나는 장궤를 하고 집중해 보았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과 몸의 움직임



그림 · 이준석

졸립고 힘든 마음 바쳐 집중하자
지혜 열리고 몸에 힘 생겨나

을 낱낱이 부처님 전에 올렸다. 정말 가슴 속에 깊이 흐르는 마음의 강에는 별게 다 들어 있었다. '미륵존여래불' '응무소주 이생기심(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며칠 후, "죽염된장 1kg좀 갖다 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다. '예' 하는 마음으로 바로 갖다드리며 아주머니한테 드리는 순간, 그 분이 된장 사 가시는 부처님으로 보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일시에 쉬어졌다. 몸과 마음과 호흡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다. 깔끔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맑은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 당시의 탁발 수행의 의미가 뼛속 깊이 느껴왔다.

〈유마경(維摩經)〉제자품(弟子品)에는 탁발의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걸식은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걸식은 식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분별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하여 모든 것이 꼭둑각시와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걸식한 밥은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부처와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 먹어야 남의 보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도 해탈에 들고, 집착을 끊지 않고서도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발'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행자는 탁발을 통해서 수행의 가장 큰 적인 아만과 고집을 없애고 보시하는 쪽으로 보면 선업을 쌓는 공덕이 된다"고 적혀 있었다.

탁발하는 것이 복을 바르게 주고 받는 공덕이고 불가사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이유와, 다라니의 옴과 복이 일치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마음자리에 복을 짓는 것이 1초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는 현재심을 현재에 바쳐내는 순간, 오롯하게 부처님이 서 계셨다. 장궤하고 미륵존여래불을 30분 정도 되뇌이며 정진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이어지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였다. 조사어록에 '부처님은 마른 똥 작대기, 부처님은 고깃덩어리'라는 글귀가 한마음으로 다가왔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라는 법사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행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잘 안되던 남편이 부처님으로 보였다. 딸 부처님, 아들 부처님 그리고 사물과 사람 모두가 부처님 당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육신만 시봉 하느라 철없이 보낸 나의 40년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이제 정신이 들어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내 모습을 바라 보면서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가 확실히 정리되었다. '다시 한번 세세생생 부처님 전에 복 짓고 살기를 발원하며, 주위에 떨고있는 이웃과 결식아동들 모두가 불국토에서 행복하게 살길 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시원하게 뚫린 푸른 하늘을 가르며 된장 사 가시는 부처님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는 법음이 가득하다. 만약 마음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망상이란 때만 없으면 곧 청정이란 걸 깨달았다. 나에게 집착하는 것은 더럽혀진 것이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은 곧 청정한 것이란 참 진리도 가슴속에 각인되었다. 나무석가모니불.

"봉사하며 살라는 가르침"

● 당선소감 ●

대상 김용숙씨



막상 큰 상을 받고보니 어린시절 서울 개운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참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안병호 법사님의 생각이 간절합니다. 절 마당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사탕보따리를 열어 나눠주시는 모습에서 보시행을 처음 배웠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일러주신 안법사님의 말씀이 수기를 써내려가는 동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상 소식을 들으니 당선의 기쁨보다는 잠시 보시행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았던 저에게 불법의 그늘속에서 다시한번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라는 큰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차오르는 아상과 싸우며 앞으로도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해 그 가르침의 소중한 씨앗을 내 주변에 뿌려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이번 신행 수기 당선으로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재발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숙씨는 97년 시 '낯설기'로 제5회 과천시민문학상 '우수상'과 세계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체험수기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금강경 독송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랍 21일 심사위원들이 본심에 오른 작품들을 심사하고 있다.

총 80편 응모 … 기복작품 많아 흠

● 심사평 ●

총 80편중 예심을 통과한 11편이 본심에 올랐다. 올해도 역시 삶속에서 만난 질곡을 불법의 힘으로 이겨낸 과정을 진솔한 글로 옮긴 체험담들이 많았다. 하지만 기복적인 내용의 작품들도 적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중 김용숙씨의 '된장 사가시는 부처님'은 〈금강경〉을 읽고 된장 장사를 하면서 인욕과 보시행을 생활속에서 실천한,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신앙 체험이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김규년 씨의 '불교와의 첫 인연'은 가족들의 불교 인연담을 깔끔한 문체로 정리해 '현대불교사장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으로 뽑힌 다섯 작품들 역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고비에서 넘어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대 삼아 인생의 항로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된 내용들이어서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총화종 총무원장을 수상한 최종해씨는 살인을 저질러 8년째 목포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로 불교에 귀의해 죄를 참회하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써내려 갔다.

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은 "신행수기는 사찰이나 교양대학 등에서 배운 교리를 생활속의 실천신행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진솔하게 기술해야 된다"며 "많은 응모작품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실한 반면 표현부족과 기복적인 치우침이 많아 수기로서의 수준이 떨어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심사위원: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김병규(본지 주필) 김정자(언론인) 최정희(본지 편집고문) (사진 왼쪽부터)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불거촌 유앙산 진무도량(전통사찰 58호)
진묵경당 진묵조사전
조 앙 사 진 묵 사
진묵조사님의 탄생터. 무자손 천년 향화 지지
주 지 송 헌 합장
신도대표 김진호 김재승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431
TEL : 063)542-5585 · 063)542-5485

대한불교 해인종
약 사 암
주 지 혜 공 합장
■ 전북 군산시 조촌동 784-1
TEL : 063)443-1782

연 화 사
주 지 원 경 합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2 (진밭다리-모래내시장)
TEL : 063)254-1688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관음포교원
주 지 진 성 합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82-4
TEL : 063)282-6038 · 283-8610

대한불교 천화종 총본산
황 방 사
종 정 의 천 합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만성리 산 84
TEL : 063)214-0788 · 214-0108

대 원 사
조 실 의 천 합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 152
TEL : 063)288-2752 · 232-8078

보 문 사
관음기도도량
주 지 향 산 합장
신도회장 이보문심
총 무 김지환
총 무 김귀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65-14
TEL : 063)284-7547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능가산 개암사
주 지 합장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종무소 063)581-0080, 583-387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 선 암
주 지 덕 산 합장
신도회장 최진여심
십선회장 해산 안준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 063)221-8486 · 221-4804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상 주 사
관음기도도량
주 지 정 덕 합장
신도회장 박복수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544
TEL : 063)453-7800 · 453-4554